

천년을 이어온 전통 한지

현대 미술을 홀리다

고양시 공예명장 — 한지공예가 전진숙

한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고유한 지류다.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 ‘한지는 천년을 가고, 비단은 오백 년을 간다’는 말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책부터 각종 공예품까지 쓰임새가 다양하다. 전통 한지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전진숙 한지공예가를 만나 한지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

WRITER. 임기선



피카소 얼굴(cubism) 32×73cm 한지, 닥피, Boardiong, 철사, 혼합재료, 줌치기법, 은분, 바느질기법, 윙글기법 2018

평범한 주부, 운명처럼 한지를 만나다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전진숙 작가는 우연히 한지공예 전시를 보고 강한 영감을 받았다. 과거 한지에 정갈하게 글씨를 쓰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고, 그 옆에서 한지를 갖고 놀던 기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결혼 후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전진숙 작가는 나이가 들어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기에 한지공예가 건넨 영감은 운명처럼 느껴졌다. “우연히 인사동에서 닥종이 인형 전시를 보게 됐어요.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보면서 한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매료됐고,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전진숙 작가는 서른 살의 나이에 한지공예를 익히기 시작했다. 인사동에 자리한 예원문화협회에서 한지공예를 배운 후, 최옥자, 김병하 스승님을 찾

아 가르침을 받은 뒤 전주의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진학했다. 닥종이 인형에 풍부한 감정을 담고 싶어 인체조형해부학까지 공부하며 한지공예에 매진했다. “저는 한지공예가 지닌 아름다움과 포용력에 빠져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원동력을 갖고 있었죠. 한지공예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오늘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전진숙 작가는 2004년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감서리’란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초대장 한지 부조 인형 제작, UN 반기문 총장 한국 대표부 홀 전통 한지 조명등 작업, 오스트리아 빈 IAEA 50주년 국제 콘퍼런스 전시,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 총연출, 세종문화회관 송강 정철 전시, 강서구 허준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2021년에는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